

# 세계화 추진 효율적인 기구재편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가 지난 4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유산분야 최초의 시상제도인 '직지상'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 세미나가 지난 6월4일 오후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제1주제는 허권 유네스코 문화팀장이

'직지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승환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황재봉 시의원, 임병무 충북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제2주제로 박조원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직지상 제정과 세계화 추진'이란 주제발표와 전순동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강형기 충북대 교수와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다. 제3주제는 노영민 국회의원이 '국가차원의 직지문화정책과 지원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이동주 직지세계화추진단장, 남윤성 청주문화방송 특집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 국가의 직지문화 정책 추진방안

청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3청주직지축제'가 개최되는 등 직지의 세계화 전략에 관한 나름대로의 실천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나 좀더 거

시적인 측면에서 시민과 관련단체, 그리고 학계가 참여하여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의 공식적인 수립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각계각층에 적극적이고 합당한 논리로 계획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전담 행정기구 확대 개편해야

최근 청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직지 세계화 전략과 관련한 각종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그 방대한 전략들을 실행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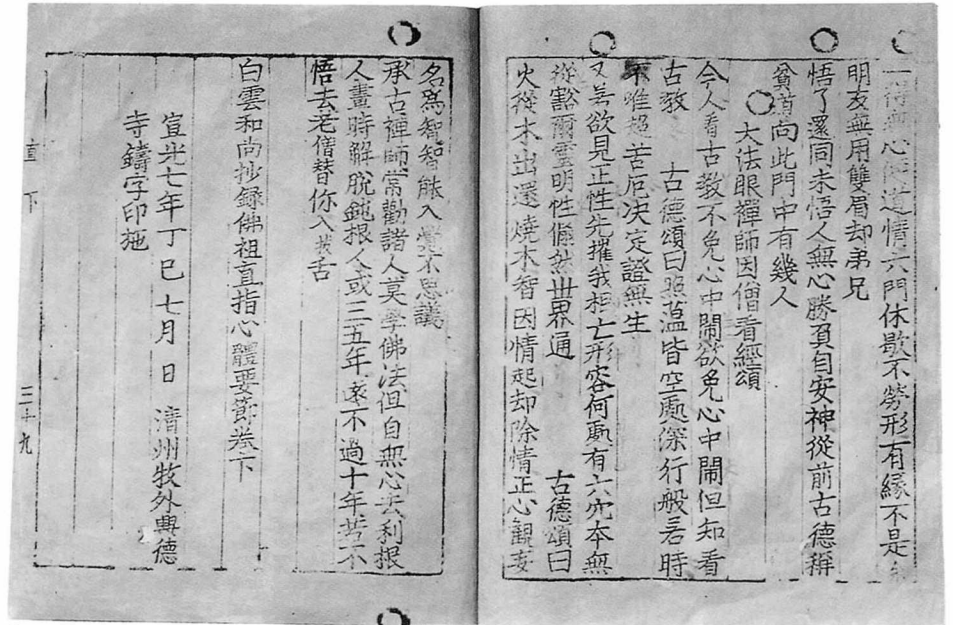
가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효율적인 추진체계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본으로 정부와의 연계성, 국제 감각과 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청되며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 민간과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직지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은 고인쇄박물관이다. 고인쇄박물관은 청주시의 사업소로서 행정 5급의 관장과 3개 담당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 5급 단장과 3담당으로 '직지세계화추진단'을 만들었다. 이러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량의 분산과 중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이원적인 시스템인 고인쇄박물관과 직지세계화추진단을 일원화함은 물론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보강과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경영마인드를 가진 인재의 과감한 기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학술 연구기관의 설치 필요

'직지'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술적인 연구 없이 표면적인 사업만 육성하다 보면 직지가 갖고 있는 속성적 한계인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칫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 구텐베르크의 경우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과 같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학술적인 연구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직지문화연구소(가칭)', '한지(종이)연구소', IT&T 관련 아카데미(대학) 등을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와 연결하는 산학협동의 연구소들의 설치



현재적 수준에서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은 아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이 시기에서의 세계화 전략은 단계적 발전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 시기 청주시의 역량이나 구조적 한계로 볼 때 외교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전략은 일정정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 시급하다.

#### 직지특구(가칭)의 제정

정부에서는 2004년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특례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물론 이 특례법에 의해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정부(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조례의 제정 등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지(사적 315호)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일대를 '직지특구'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직지특구' 제정은 직지 세계화 전략의 핵심 추진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곳 '직지특구'로부터 직지와 관련한 국제관광, 문화사업 및 국제 학술교류 등의 직지 세계화 전략이 차근차근 실행되나갈 수 있는 요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 청주문화산업단지의 활성화

앞에서 언급한 청주문화산업단지들을 통한 IT, CT산업의 직지 세계화 전략

과의 연관성 부분이다.

IT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경영혁신, 행정쇄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무형 기술을 포함하는 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CT산업은 인터넷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 등 IT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은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저작권보호 솔루션 등 각종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정보혁명의 완성 단계는 정보의 디지털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혁명의 주도적 근원지인 급속활자를 발명해낸 청주에서 정보혁명의 완성단계인 디지털시대의 주요 산업인 IT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그러한 IT산업의 발전에 근거한 CT산업의 선택은 직지의 세계화 전략에 아주 중요한 방법론으로 청주의 미래 지향적 산업이 되리라 생각된다.

IT기술에 근거한 CT산업의 육성은 직지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 세계를 청주의 앞마당에 불러모아 우리의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인 직지를 알리고 직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적 가치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산업적 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연계산업이다.

따라서 청주문화산업단지의 중심아이템으로 IT, CT산업의 채택은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에 가장 적합한 청주의 중심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 정부차원의 외교활동 지원

현재적 수준에서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은 아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이 시기에서의 세계화 전략은 단계적 발전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시기 청주시의 역량이나 구조적 한계로 볼 때 외교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전략은 일정정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외교담당 부서에서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사례의 국제 홍보활동을 분석하여 표준화시키고 그에 맞는 직지의 홍보 유형을 개발한다든지, 청주시 주최 국제 심포지움을 정부와 공동주관하고 외교관련 부처의 직원을 초청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의 해외 홍보전시회를 기획하여 현지 대사관과 공동 주최하는 외교부처 직원의 교육과 국제 홍보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주체의 설정 시급

'국가차원의 직지문화정책과 지원방안'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직지세계화 전략' 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을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에 동의함을 전제로 그 방법론을 살펴보면 우선 주체의 설정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정부의 각 부처가 연계되는 통합적인 직지의 가치창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조직화로 직지에 대한 자긍심 고취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지의 자랑스러움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의 확보야말로 가장 큰 직지의 힘이 될 것이다.

직지상의 가치를 관련 분야의 노벨상에 버금가도록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국내 최우수 창작물의 브랜드를 직지로 통합해 관리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표 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적인 가치를 핵심전략으로 정해 세계인의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제대로 된 직지의 세계사적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직지의 생명력을 한층 강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안 주체로서 청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지의 세계화 전략' 사업의 의미와 가치는 청주시 혹은 청주시민의 주관적 판단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가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 추진전략의 실행단위에 있는 각각의 사업이 자기 완결성과 함께 상호 연관성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앙 정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는 형태로서 청주시가 국가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과 의지를 범시민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직지에 대한 이해의 폭은 청주시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일천한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에 판단의 근거를 두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참여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이의 실행방안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연 5조원의 예산규모로 정부 각 부처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청주시의 '직지세계화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적 기회라 생각되어 이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의미 할 것이다.